스사노오 신화

이 영화에서는 고사기(古事記)의 대표적인 이야기 중 하나인 야마타노오로치 퇴치로 유명한 스사노오미코토의 생애에 관한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자나키(이자나기로도 표기됨)와 이자나미의 신들이 세상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이자나키와 이자나미는 함께 여러 새로운 신들을 낳았지만, 이자나미는 불의 신을 낳은 후 세상을 떠납니다. 이자나키는 이자나미를 저승에서 구해내려고 했지만, 이미 황천국의 음식을 먹어버린 이자나미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악귀와 악령에게 쫓기게 된 이자나키는 거대한 바위로 저승의 입구를 막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 후 이자나키가 강에서 몸을 씻는 과정에서 태양의 신 아마테라스와 달의 신 쓰쿠요미, 그리고 스사노오까지 세 명의 신이 태어났습니다.

이자나키는 처음에 스사노오에게 바다의 지배권을 주었지만,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한 스사노오는 결국 천상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스사노오는 천상계를 떠나기 전에 아마테라스를 만나기 위해 다카마가하라로 갑니다. 스사노오를 의심하고 있던 아마테라스는 전투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스사노오의 진의를 확인하고자 두 신은 점괘 의식을 치릅니다. 애매한 점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사노오는 “내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누나인 아마테라스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 후 스사노오는 계속해서 흉폭한 난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아마테라스의 하인 중 한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아마테라스는 동굴에 틀어박혀 지내게 되었고, 온 세상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윽고 아마테라스는 동굴 밖으로 유도되고 스사노오는 영원히 추방됩니다.

이즈모에 도착한 스사노오는 노부부가 자신들의 아름다운 딸인 구시나다히메와 함께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문을 물으니, 야마타노오로치라고 불리는 8 개의 머리와 8 개의 꼬리가 달린 뱀이 다른 딸을 모두 먹어치우고 이제 곧 구시나다히메를 데리러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스사노오는 구시나다히메와 결혼하는 대가로 괴물을 퇴치하는 것에 응합니다. 스사노오는 야마타노오로치를 함정으로 유인한 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죽인 괴물의 꼬리 안에서 구사나기의 검이라 불리는 명검을 발견했습니다. 스사노오는 검을 아마테라스에게 바쳤고, 이 검은 훗날 아마테라스의 후손인 일본 천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3 종의 신기(神器)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